# "비발디가 다가온다. 봄의 하모니로 물든다"

##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오는 28일 시청사서 정기공연
## 오후 6시 시청 1층 시민홀 '한국 가곡·비발디 클래식' 선사
## "기존 형식 과감히 탈피" 객석·무대 경계 허물고 시민과 호흡
## '콜레기움 무지쿰 서울' 협연·시립발레단 특별출연 무대 '풍성'

'열린 청사'로 새롭게 조성된 광주광역시청사가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선사하는 감동의 하모니로 물든다.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오는 28일 오후 6시 광주시청사 1층 시민홀에서 제144회 정기공연 '비발디 글로리아'를 개최한다.

합창단은 더 많은 시민과 가까이에서 호흡하기 위해 일반 공연장에서 진행되던 기존 공연 형식을 과감히 탈피했다.

공연장이 아닌 일상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음악을 접하게 해 누구나 부담없이 음악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객석과 무대의 경계를 허물고 관객과 가까운 거리에서 울려 퍼지는 하모니는 이전의 정기공연과는 또 다른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시민 친화적 휴식공간을 넘어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광주시청사에서 열리는 규모 있는 공연인 만큼 앞으로도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공연이 열릴 것이란 시민들의 기대감도 높다.

이번 정기공연은 권기원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상임지휘자의 지휘 아래 김자영 피아니스트 연주, '콜레기움 무지쿰 서울'과 광주시립발레단의 협연을 통해 눈과 귀를 사로잡을 다채로운 무대로 꾸며진다.

합창단은 합창음악의 정수라 할 수 있는 비발디의 'Gloria(글로리아)'를 바로크음악 전문 연주단체 '콜레기움 무지쿰 서울'과 협연한다.

특히 광주시립발레단과 협업을 통해 웅장하지만 간결한 바로크 선율과 아름다운 발레 퍼포먼스가 어우러져 감동을 주는 특별한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국내 최고의 작·편곡자들이 새롭게 해석한 한국 가곡과 동요도 함께 선보이는 만큼 친숙한 멜로디 속에서 새로운 감동을 선사할 계획이다.

첫 무대는 '비목', '가고파', '목련화', '아낌없이 '우리들의 세상' 등 서정적인 한국 가곡과 순수한 동심을 느낄 수 있는 동요로 꾸며진다.

두 번째 무대는 바로크 시대를 대표하는 비발디의 '글로리아 D장조, RV589'를 선보인다. 합창단 단원인 소프라노 신루아 양과 알토 장예서 양이 곡의 독창 부분을 직접 맡아 들려준다.

합창단은 이번 공연을 통해 전통적인 공연의 틀을 깨고, 친숙하고 다채로운 방식으로 시민들과 소통하는 합창무대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권기원 상임지휘자는 "누구나 부담없이 다가올 수 있도록 준비한 특별한 공연이다. 문화예술이 우리 삶 가까이에서 숨 쉬고, 시민들이 편안한 공간에서 음악과 무용이 함께하는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기획했다"며 "공연장을 찾지 않아도 일상에서 즐길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연주회인 만큼 많은 분들이 함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정기공연은 무료로 준비된 좌석은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보다 자세한 일정 및 내용은 광주예술의전당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명수 기자

## 복간시집 한자리에… 동구 인문학당, '한국시집 모음展'
# 6월 1일까지, 김연덕 시인 초청 주제 강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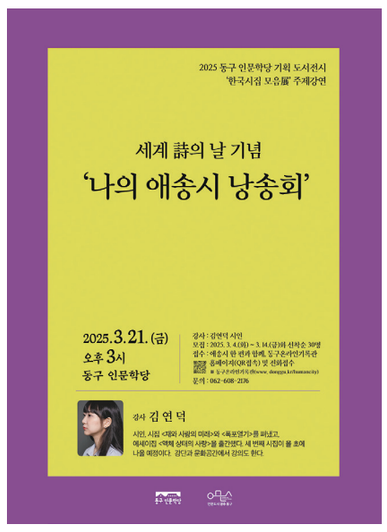
광주 동구(청장)는 오는 6월 1일까지 동구 인문학당에서 기획전시 '지금 여기 우리 시(詩), 한국시집 모음展'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시작한 '한국시집 모음展'은 1999년 유네스코 총회에서 지정한 '세계시(詩)의 날'(매년 3월 21일)을 기념해 기획됐으며, 시(詩)가 주는 언어의 힘을 대중들이 느끼며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 중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1970년대~현대까지 발행된 시집 3천여 권을 만날 수 있다. 도서들은 출판사·작가별로 구분해 전시 중이다. 눈 여겨 볼 부분은 절판된 희귀본과 간행이 멈춘 절판본을 다시 출판한 복간시집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는 점이다.

복간시집 '진달래꽃'은 2006년 1인 출판사인 '소와 다리'에서 출판했는데 한 달 만에 베스트셀러에 올라 화제가 됐다. 이후 윤동주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백석의 '사슴', 정지용의 '정지용 시집'도 복간본으로 출판돼 인기를 누렸으며, 이들 책도 전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문학과 지성', '문학동네', '민음사' 등에서 발간된 시집들과 시 전문지 '오늘의 詩(시)' 등을 주제별로 보는 재미도 느낄 수 있다.




오는 21일 오후 3시에는 전시 주제 강연 '나의 애송시 낭송회'도 열린다. 강연자로는 김연덕 시인이 나서며 시민들과 애송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낭독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출신인 김연덕 시인은 시집 '재와 사랑의 미래', '폭포 열기' 등을 펴냈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동구청 온라인기록관 또는 전화(☎062-608-2176)로 신청하면 된다.

/전혜정 기자

# 광양시, 예술의 향기 품은 원도심에도 그윽한 '매화향' 가득
## 수준 높은 전시 이어가는 전남도립미술관과 광양예술창고… 문화관광 거점 부상

광양시는 폭넓은 스펙트럼과 수준 높은 전시를 이어가는 전남도립미술관과 광양예술창고 등이 있는 원도심에 그윽한 매화향이 가득하다고 밝혔다.

옛 광양역 터에 건립된 전남도립미술관은 세계가 주목하는 격조 높은 전시를 이어가며 광양예술창고와 함께 반드시 거쳐야 하는 문화관광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3월에는 미술관 앞마당 한편에 깊게 뿌리를 내린 매화나무 고목에 별처럼 앙증맞은 매화가 피어나 미술관을 찾은 방문객을 먼저 반긴다.

현재 미술관에서는 미국 로스엔젤레스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래리 피트먼의 '거울 & 은유'와 기증작의 가치와 의미를 재조명하는 '바람 빛 물결 전(展)'이 성황 전시되고 있다.

광양예술창고는 60년 된 폐창고를 재생한 복합문화공간으로 미디어 영상실, 이경모 아카이브 등으로 구성된 미디어A, 소통공간이자 문화쉼터인 소교동B로 구성됐다.

다채롭고 유연한 프로그램으로 방문객들과 활발하게 호흡하고 있는 광양예술창고는 편안한 분위기로 미술관 관람객의 동선을 확장하면서 문화 소통의 장으로 거듭나고 있다.

수도권에서 온 한 방문객은 "새로운 전시를 개막한다고 해서 왔는데 매화의 본고장인 광양에 세워진 미술관에 걸맞게 활짝 핀 매화가 반겨서 기분이 좋았다"며, "미술관 전시를 보고 이색적인 외관에 끌려 광양예술창고를 찾았는데 천장을 마감하지 않고 그대로 드러낸 트러스 구조가 폐창고의 느낌을 간직하고 있어 편안했다"고 말했다.

김미란 관광과장은 "광양매화마을이 전국에서 가장 먼저 봄꽃을 피운다면 광양 원도심은 시시각각 향기로운 예술의 꽃을 피운다"며, "때마침 고운 매화를 피운 전남도립미술관과 광양예술창고를 방문하고 인근 인서리공원, 서울대학교 남부연습림까지 여행 동선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신선호 기자

# 국립남도국악원, 해설이 있는 풍류음악회 운영
## 3월 26일 수요일 저녁 7시 진도군 옥주골 창작소에서 개최

국립남도국악원(원장 박정경)은 전남 진도군 소재 옥주골 창작소에서 2025 상반기 '해설이 있는 풍류음악회'를 오는 3월부터 6월까지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수요일 오후 7시에 총 8회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공연은 국악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접근 방식을 통해 그 속에 담긴 의미와 뜻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이를 통해 국악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또한, 전통예술의 보존과 전승을 넘어 국민들에게 보다 쉽게 다가가는 국악 콘텐츠 개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설이 있는 풍류음악회'는 전문가 또는 유명 인사를 초청하여 인문학과 국악을 접목한 강의형 공연 형태로 선보일 예정이다.

3월 26일 강의자로는 국립남도국악원장 '박정경' 원장이 무대에 오른다.

"이상하고 아름다운 우리문화, 굿 이야기"을 주제로 '팔도의 굿과 무당, 한국 예술의 텃밭, 세습 예인, 웃음과 눈물의 진도 상장례'에 대해 이야기한다.

진도/오재명 기자

광전매일신문 기사제보·광고문의 TEL 062-525-9775